

노지문화 보존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활동하는  
노지문화 생태예술가

이 치 웅

이치웅

하례의 내창과 오름, 숲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소리와 움직임에 집중하여 하례리의 사계(四季)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다.

활 동 명 : 생태문화의 확장과 다각화를 위한 리서치

대 상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내창과 오름, 숲, 그리고 사람들

결 과 물 : 리서치 및 음원이 포함된 영상, 초기 온라인 채널

기 록 : <https://youtu.be/3yILMSEdOdA>

## 1. 그간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하례리 생태관광 마을은 이 지역의 자생적 생태문화를 마을 스스로 발견해내고 가꾸어나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구성원이 함께 우리 마을의 생태를 깊이 바라보고 서로서로 이곳을 가꾸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마을 일원이 되어 그 과정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하례의 자연과 문화를 온라인을 통해 나누어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 2.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부터 엠비언트 마인드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하례리 주변 그리고 제주도 여기저기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들에서 영상과 사운드를 채취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인공적인 소리보다도 자연에서 듣게 되는 소리가 저의 마음이나 감각을 민감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의 현장에서 듣게 되는 소리와 그 소리를 듣던 중

마음에 떠올렸던 소리를 바탕으로 사운드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재미있어요. 재밌다는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서이겠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의 시각, 저마다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야기들이 꽤 재미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딱히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특징이에요. 물론 영상과 사운드 매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걸 담고 가공하는 방식에서는 딱히 연출이나 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정교한 기술로 자연을 담아 보여주는 콘텐츠는 이미 온라인 상에 준비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방식과 기술에 집착하거나 기대어 우리가 바라는 이미지와 음악을 짜내는 것이라기보다 현재 우리의 시각이 혹은 기술이 어쨌든간에 현재 우리의 감성을 통해 담기는 그래서 독특할 수 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바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의 삶의 방식이 있네요 여기에. 그런 점에서 볼 때 태도는 그것이 방식이건 아니건 저에게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런 관심 안에서 생태라는 것도 사운드라는 것도 집어들게 된 것 같아요.

### 3. 작가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의 노지문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여기 사람들은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의 생태에 대한 태도는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마을 사람들 각자 마을을 생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가꾸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마을의 문화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나와 꼭 같은 것을 발견할 때의 감정. 딱히 불협화음이란 것을 느낄 수 없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4. 작가님이 바라는 노지문화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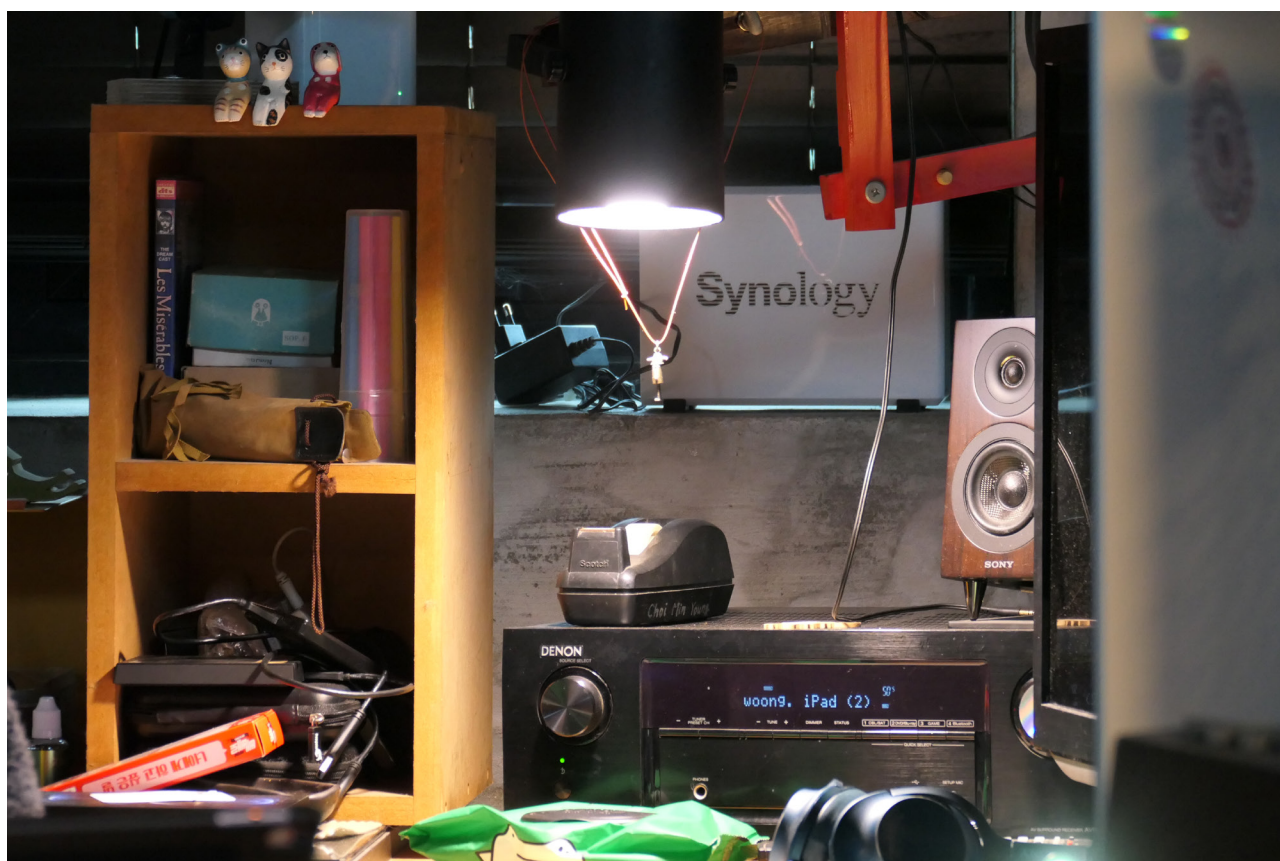
작업 초기에는 하례리 주변 그리고 제주도 여기저기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들에서 영상과 사운드를 채취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차 그 대상이 하례리의 자연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고 좋아하는 것과 함께 하다보니 그게 자연이었습시다. 거기서 주는 소리와 이야기가 무궁무진했어요. 그 어떤 인공적인 소리보다도 항상 열려있는 소리. 그런 소리가 제 마음이나 상태, 감각들을 민감하게 유지하는데 저한테 적합해 보였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인데 그게 진행이 되면서 프로젝트에서 하는 이야기 또 알아보고자 하는 지점들이 이 마을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비슷한 태도를 나누며 마을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하다보니 가만히 들게 되는 생각이, 사람들이 단지 자기의 감각들을 채우고 해소하는 방식으로 만나는 방식의 소비재로써의 생태가 아니라 서로의 소리와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고 같이 교감하는 태도가 문화에 자리잡는다면 자연과 사랑스런 관계가 되겠다는 지점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있어서 프로젝트가 지향하고 있는 바라면 바고 그것이 제가 바라는 노지문화입니다.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마음이 놀랍게도 거기에 닿아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품은 것이 자연스레  
드러나기만 해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현장

현장 답사 및 인터뷰 (사진 출처: 스튜디오 sssstudio)

하례리에 위치한 작가의 공간







현장

기록 (사진 출처: 작가 제공)

---

내창 (하례리)

